



하루에 하나



2026.6.11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24.20원 (-0.30원)

KOSPI

7,730.82 (-366.11, -4.52%)

KOSDAQ

951.63(-16.18, -1.67%)

국고채 10년 금리

4.273(+0.00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시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이영주]
해외채권	[6월 FOMC 프리뷰] 감독 교체에도 팀은 바뀌지 않는다 [허성우]

기업분석

삼천리 [신규]	연간 최대 이익 달성 가능성 [유재선]
에치에프알	우리가 AI RAN 대표주입니다 [김홍식]
풀무원	해외 적자 점진적 축소 기대 [심은주]
한국공항	유가와는 별개로 견조한 실적 전망 [안도현]

산업분석 Weekly

유통/화장품/생활소비재 2016년과 2026년 달라진 면세점과 백화점의 위상 [박종대]

글로벌리서치

뉴코어	데이터센터와 인프라가 견인한 1Q26 실적 호조! [박성봉]
스틸다이내믹스	미국 철강 시장 공급 부족 수혜와 신사업 성장도 기대 [박성봉]
로빈후드	5월 월간 지표 업데이트 [고연수]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BNK금융지주, 오리온, 심텍

2026년 6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의 창(窓)

시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AI는 성장산업을 넘어 자본집약 산업으로

최근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AI 투자 확대에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민간 부문 고정투자 확대를 이끌었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왔다. 시장 또한 AI를 생산성 혁신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이 확대될수록 AI는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모델 성능 경쟁과 연산 수요 증가는 데이터센터와 GPU,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전력망과 냉각설비까지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이제 AI 경쟁은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 보인다.

현금흐름만으로는 부족해진 AI 투자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과거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잉여현금흐름(FCF)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을 확대해 왔다. 특히 Alphabet은 수년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대표적인 현금창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GPU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현금흐름 부담도 빠르게 커졌다. 실제로 Alphabet은 올해 초 100년 만기 (Century Bond)를 포함한 대규모 글로벌 채권 발행에 나섰으며, 이후 유로화 채권과 사무라이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 기반을 확대했다. 여기에 약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발표하며 AI 투자 자원 확보에 나섰다.

주목할 부분은 개별 조달 수단이 아니라 투자 규모의 변화다. 과거에는 내부 현금흐름이 투자의 범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본시장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AI 산업이 새로운 자본집약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시가 만드는 새로운 자금 수요

이러한 변화는 Alphabet만의 사례가 아니다. Meta는 사상 최대 규모의 AI CAPEX 계획을 발표했으며, Amazon 역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잉여현금흐름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Microsoft 또한 AI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AI 데이터센터는 증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장비 교체가 반복되는 자본집약적 자산이며, 전력망과 네트워크 인프라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회수 기간이 긴 장기 투자 성격의 자산이다. 이처럼 AI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금 수요는 회사채 시장과 주식시장, 인프라 금융 등 다양한 자본시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AI 투자 확대는 이제 기술 산업을 넘어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2026년 6월 10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6월 FOMC 프리뷰] 감독 교체에도 팀은 바뀌지 않는다

- 6월 FOMC 만장일치 동결 전망. 워시 등판에도 연준 매파적 색채 변하지 않을 것
- 완화적 편향 문구 삭제되고 양방향 가능성 모두 열어두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교체될 것. 인하 기대감 소멸되면서 연내 인상 우려 높아질 전망
- 미 국채 금리 상방 압력 유효. 투자 의견 '축소'로 하향 조정. 10년 4.4~4.8% 제시

양방향 가능성 모두 열어둔 연준

6월 FOMC에서 만장일치 동결 전망한다(3.75%). 줄곧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했던 마이런 이사가 물러나고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데뷔전을 갖게 된다. 워시 등판에도 연준의 매파적 색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성명서에서는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①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remained low)'에서 '반등(rebounded)'으로 변경이 예상되며 ② '완화적 편향' 문구(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를 삭제하고 '인내심(patient)' 문구를 소환해 장기 동결 명분을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FOMC에서 핵심은 성명서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3주 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완화적 편향' 문구 유지를 반대한 위원들은 '다수(many)'를 차지했으며, "과반수(majority)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경우 일부 정책 긴축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중립이 아닌 '긴축 편향(tightening bias)'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4월 FOMC 원문을 보면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는 명백한 완화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그러나 최근 3개월 연속 10만 명을 상회한 고용 지표와 점차 높아지는 물가 상방 압력은 연준 위원들로 하여금 매파적인 색채를 짙게 만들었다. [도표 1] 월러 이사를 포함한 주요 연준 인사들도 4월 FOMC 이후 발언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준이 인하 깜빡이를 끄면서도, 잠재적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가장 유력한 카드는 2019년 1월에 활용했던 '정책 유연성(patient)'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당시 연준은 2018년 12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2019년 1월부터 장기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도표 2~3]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6월 11일 | 기업분석_Initiation

BUY(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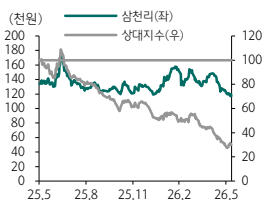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60,000원
현재주가(6.10) 117,1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730.82
52주 최고/최저(원)	172,000/117,100
시가총액(십억원)	424.7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626.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
외국인지분율(%)	11.78
주요주주 지분율(%)	
이만득 외 24인	43.73
다제이사산용용	6.8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120.5	5,275.5	5,854.7	5,807.8
영업이익	114.3	159.6	178.8	180.9
세전이익	144.3	168.1	194.0	198.7
순이익	101.4	111.5	140.1	131.8
EPS	24,999	27,498	37,541	36,332
증감율	(15.69)	10.00	36.52	(3.22)
PER	3.55	4.67	3.12	3.22
PBR	0.22	0.30	0.23	0.22
EV/EBITDA	2.72	2.42	1.48	1.82
ROE	6.55	6.84	8.00	7.01
BPS	404,363	429,500	506,673	540,172
DPS	3,000	3,000	3,000	3,0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삼천리 (004690)**연간 최대 이익 달성 가능성****목표주가 160,000원, 투자의견 매수 제시**

삼천리 목표주가 160,000원, 투자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6년 예상 BPS에 목표 PBR 0.3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목표 PBR은 도시가스 5개사 12개월 Trailing PBR의 평균 0.36배에서 15%를 할인한 수치다. 배당수익률이 동종기업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할인율을 적용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본업의 안정화 및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3년 연속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양호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순차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삼천리 별도 순차입금은 10년 이상 마이너스를 지속 중이며 2026년 1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도 순현금 상태로 전환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통한 외형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26년 2월 성경식품 지분 100%를 1,195억원에 인수했으며 가용 현금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2026년 실적 기준 PER 3.1배, PBR 0.23배다.

2026년 영업이익 1,788억원(YoY +12.0%) 전망

1분기 매출액은 1.8조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별도 매출이 1.3조원으로 전년대비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외형이 둔화되었다. 판매량은 연료전지와 기타용 중심으로 증가했다. 주요 자회사 중 에스파워는 SMP 약세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삼천리 모터스 개선과 성경식품 연결 인식으로 전사 외형 둔화를 방어했다. 영업이익은 1,101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개선되었다. 별도 이익이 678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성장했고 집단에너지도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발전은 이익이 감소했지만 마진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이다. 연간 영업이익은 1,788억원으로 전년대비 12.0% 개선될 전망이다. 하반기 집단에너지 수익성 둔화 가능성을 감안해도 1분기 별도 이익 개선 및 성경식품 연결 인식 등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주가치 제고 시 추가 재평가 가능

배당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당 3,000원이 유지되고 있다.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10% 중후반에서 3~40% 수준까지 범위가 넓다. 삼천리 별도 실적 대부분을 구성하는 도시가스 실적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도시가스는 계절적으로 4분기와 1분기에 실적이 집중된다. 12월과 1월 사이 평가와 원가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분기 실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이유다. 배당은 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성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배당이 연결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DPS 기반으로 배당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향후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06월 1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6.10) 23,0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51.63
52주 최고/최저(원)	38,050/11,580
시가총액(십억원)	306.8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3,309.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1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1
외국인지분율(%)	8.74
주요주주 지분율(%)	
정종민 외 2인	30.6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5.2	273.5
영업이익(십억원)	(0.4)	50.5
순이익(십억원)	(5.0)	36.9
EPS(원)	1,142	5,921
BPS(원)	12,252	18,374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7.1	142.0	138.7	337.3
영업이익	(20.2)	(1.6)	(14.0)	75.4
세전이익	(15.1)	(1.5)	(18.1)	74.6
순이익	(18.6)	(0.3)	(18.6)	59.6
EPS	(1,384)	(23)	(1,397)	4,477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12.82)	(503.48)	(18.15)	5.66
PBR	1.47	1.03	2.52	1.75
EV/EBITDA	(18.37)	37.09	(45.25)	4.20
ROE	(11.34)	(0.21)	(13.82)	38.08
BPS	12,107	11,231	10,048	14,525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에치에프알 (230240)**우리가 AI RAN 대표주입니다****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사유는 1) HFR은 SKT-노키아의 AI RAN 파트너이자 통신사 모두 레퍼런스가 있는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AI RAN 수혜가 예상되며, 2) AT&T-에릭슨-후지쯔 3사간 미국내 이해관계 고려시 높은 확률로 AT&T 벤더사로 선정될 것이고, 3) 미국과 국내 수요 전망이 명확한데 비해 주가 상승은 부진하여서 저평가 국면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AI RAN 덕분에 국내 망투자도 초입기 진입, 어떤 형태로든 HFR엔 수혜로 작용

최근 SK텔레콤과 엔비디아가 스마트팩토리 및 데이터센터에 협력하기로 하며 AI-RAN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피지컬 시가 활성화되면 고성능 RAN이 더 많이 구축되고, 엣지컴퓨팅이 전개되며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며, 연산 자원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AI RAN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RAN 산업내 이해관계가 국내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HFR엔 커다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보다는 AI RAN 논의가 국내 5G SA/6G 망 구축을 촉진할 명분이자 트리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는 사용기한 만료된 주파수의 재경매만 진행되어 국내향 무선장비 매출 기대감이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정부가 피지컬 시를 국책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이른 시일내 AI RAN 구축을 시작으로 5G SA/6G 망투자도 이어지며 무선장비 내수 수요가 확장될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단순 RAN 성능 개선이 아닌 엣지컴퓨팅 목적으로 보자면 HFR은 올해 2월 SKT-노키아와 협력하여 AI-RAN을 실증한 당사자이다. 또한 HFR이 프론트홀에서도 입지가 뚜렷하고 국내 통신사 모두에 레퍼런스가 있으니 AI-RAN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파수 경매 진행 중, 기다리면 주가는 분명히 오릅니다

결국 AI RAN 덕분에 내수 수요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후지쯔를 통한 AT&T향 수요 전망까지 고려하면 이번 무선 사이클에서 HFR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데도 역대급 재료가 HFR 주가엔 반영되지 못한 분위기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섹터내 최근 동향으로만 따지자면 AWS 주파수 경매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던 의견과 스페이스 X의 경매 참여의사가 미온적이라 점이 있겠다. 그런데 이번 경매는 4년만의 경매 재개란 점이 가장 중요하고, 통상 막바지에 경매가 더 활성화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이번 재경매가 끝난 후에는 어퍼 C 밴드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경매가 연이어 계획되어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과 연계한 스페이스X의 지상망 구축 니즈는 해외에서도 공공연히 언급 중인만큼, 향후 통신장비 수요가 치솟을 것은 분명하다. 실적 기대감은 명확하니 조정 중일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6년 6월 11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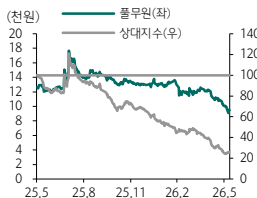
현재주가(6.10) 9,46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730.82
52주 최고/최저(원)	17,670/9,060
시가총액(십억원)	360.6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8,120.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1.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7
외국인지분율(%)	1.15
주요주주 지분율(%)	
남승우 외 14 인	59.32
인مای평화연구재단	9.9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553.7	3,709.2
영업이익(십억원)	113.3	127.0
순이익(십억원)	40.4	56.5
EPS(원)	1,077	1,480
BPS(원)	6,871	8,362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13.7	3,380.2	3,544.9	3,686.7
영업이익	91.8	93.2	107.4	116.1
세전이익	41.0	30.8	45.7	58.7
순이익	35.4	18.1	38.2	47.4
EPS	929	475	1,002	1,245
증감율	85.80	(48.87)	110.95	24.25
PER	11.52	27.24	9.44	7.60
PBR	1.29	1.53	1.01	0.90
EV/EBITDA	6.59	6.85	5.89	5.54
ROE	11.40	5.90	11.67	12.95
BPS	8,282	8,444	9,347	10,493
DPS	102	102	102	102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폴무원 (017810)**해외 적자 점진적 축소 기대****1Q26 Re: 해외 선방**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8,504억원(YoY 7.2%), 190억원(YoY 68.9%)을 시현했다. 국내 식품 서비스(급식 및 케이터링)의 두 자리 수 탑라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YoY 소폭 영업마진이 개선되었다. 해외 법인도 BEP 시현하면서 연결 손익 개선을 견인했다.

① 제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805억원(YoY 2.3%), 154억원(YoY 0.4%, OPM 4.0%, YoY -0.1%p down)을 기록했다. 신선 소재(두부 등) 매출은 YoY 감소했으나, 신제품 판매(상온 음료 등)가 주효하면서 매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B2B 매출도 키즈 채널 향수 주 확대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샘플이 물류비 등 증가 기인해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서비스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540억원(YoY 10.6%), 61억원(YoY 28.7%, OPM 2.4%, YoY 0.3%p up)을 기록했다. 런치플레이션 기인해 식수가 견조한 가운데, 컨셉선 매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③ 해외법인 합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886억원(YoY 13.1%), BEP(YoY 흑전, 1Q25 -5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매출액은 YoY 18.0% 증가한 1,362억원, 손익은 BEP를 시현했다. 3Q25부터 클럽 채널 향 두부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전사 탑라인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일본 매출액은 YoY -11.4% 감소한 197억원, 영업적자를 시현했다. 일본은 공장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는 고정비 절감 효과 기인한 적자 축소가 예상된다. 중국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매출액은 YoY 16.2% 증가한 327억원, 손익도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적자 축소 흐름 긍정적

2026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조 5,449억원(YoY 4.9%), 1,074억원(YoY 15.3%)으로 추정한다. 1H25 미국 적자 폭 감안시 2분기도 유의미한 기저효과가 기대된다. 해외법인 적자는 전년 -160억원→올해 -60억원 내외로 개선을 전망한다. ① 미국 법인은 두부 PB 제품 신규 공급 및 B2B 채널 면 제품 수주가 온기로 반영되면서 YoY 적자 축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 법인 적자는 YoY 60억원 내외 축소될 것으로 추정한다. ② 일본 법인은 생산기지 통폐합 효과가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중국 법인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적자 축소 기대감 반영 전망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9배(회석 감안) 내외 거래 중이다. 하반기 갈수록 해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06월 11일 | 기업분석

Not Rated

목표주가(12M) **Not Rated**
 현재주가(06.10) **73,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730.82
52주 최고/최저(원)	89,700/52,200
시가총액(십억원)	232.7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3,166.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
외국인지분율(%)	12.67
주요주주 지분율(%)	
대한항공	59.5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01	545	627	663
영업이익	3	34	45	47
세전이익	7	40	50	49
순이익	6	31	41	41
EPS	1,824	9,924	12,824	12,805
증감율	77.6	444.1	29.2	(0.1)
PER	22.1	5.0	4.4	5.1
PBR	0.4	0.4	0.5	0.5
EV/EBITDA	0.6	1.0	1.2	1.8
ROE	1.7	9.0	11.0	10.0
BPS	107,259	110,164	117,039	128,065
DPS	0	1,000	1,000	1,0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한국공항 (005430)

유가와는 별개로 견조한 실적 전망

한국공항 1분기 영업이익 +36%

한국공항의 1분기 매출액은 14% (YoY) 증가한 1,780억원,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197억원(영업이익률 11.1%)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항공기 지상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여객/화물/급유/정비 사업 매출액이 각각 8%/16%/17%/26% 증가했다. 여객기 조업편수 증가와 화물 조업량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 효과와 2025년 조업 단가 인상에 대한 소급분이 일부 반영되었다. 영업 비용도 인건비 인상 및 인력 채용 증가에 따라 11% 증가했다.

유가 상승에도 걱정 없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의 여객 사업부는 2분기 적자 전환하겠으나 지상 조업사의 매출액은 항공편 운항횟수와 계약된 조업 단가를 기반으로 하고, 영업 비용 내 유류비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간편 영향은 있으나, 최대 고객사인 대한항공의 감편이 적을 예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는 크지 않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 감편된 항공편은 전체 항공편수의 3%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공항은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외항사 조업 편수가 18% (YoY)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대한항공이 유리해지는 항공시장, 한국공항도 주목할 것

전쟁 이후 항공사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이 유리해지는 국면이다. 4~5월 인천공항 화물물동량은 5% (YoY) 증가했고, 항공화물 운임도 전쟁 이전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어 견조한 수요를 증명하고 있다. 여객 수요도 양호하다. 단거리 노선은 일본/중국 중심으로 아웃바운드 수요가 강하고, 가장 항공권 가격 상승률이 높은 장거리 노선도 원화 절하에 따른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한항공 위주의 항공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공항의 영업비용 중 유가에 연동되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탐라인 성장성이 유효하다면 한국공항의 실적은 우상향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시아나에어포트와의 합병 여부는 아직 미정이나, 아시아나에어포트와의 합병 유무와는 별개로 대한항공/진에어라는 국내 유일 FSC와 최대 LCC 그룹을 캡티브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주환원도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Weekly Retail-Cos. Letter

2016년과 2026년 달라진 면세점과 백화점의 위상 | 2026.6.11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 ✓ 호텔신라 2분기 실적 개선, 순항 중
- ✓ 면세점과 백화점, 외국인 인바운드 모멘텀에 엇갈리는 밸류에이션

I. 주가 분석과 투자전략

1. 호텔신라 2분기 실적 개선, 순항 중

- 호텔신라 실적은 분명한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조적으로 영업손실 요인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로 면세점과 호텔사업 모두 견조한 매출 성장과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호적인 영업환경과 사업구조 개선의 성과 측면에서 2026년은 호텔신라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호텔신라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00억원(2Q25 OP 90억원) 내외 시장 기대치 수준은 무난히 가능할 전망이다.

1) 수익성 측면: 사업구조 개선 효과 클 듯

- 수익성 개선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항면세점 영업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해외공항 면세점이 연간 거의 1,000억원 수준 영업손실을 내왔다. 두 부문 영업손실 규모는 대략 절반 정도씩이다.
- 인천공항은 2026년 4월을 끝으로 인천공항 DF1 영업을 종료한다. 인천공항점 영업손실 대부분 DF1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 공항점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해외공항점은 올해도 400~500억원 정도 영업손실을 이어갈 전망이나, 작년처럼 임차료 감면이 있을 듯하고, 객단가가 오르고 있어서 YoY 손실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전체 공항점 1000억원 손실이 500억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 둘째, 시내면세점 역시 저마진 도매(다이고) 매출 비중 축소, ii) 도매 할인률 하락, iii) 고마진 소매(일반고객) 매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도매 할인률은 과거 55%에 이르기도 했었는데, 최근 35%까지 하락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시내점 영업이익률은 하이싱글 수준까지 제고되었다. 다이고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전세계에서 호텔신라처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채널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신라는 할인률을 점차 축소하면서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 셋째, 호텔 부문은 투숙률(OCC: Occupancy Rate)과 객실료(ADR: Average Daily Rate) 동반 상승으로 외형성장률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달성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매출규모는 면세점보다 작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호텔부문이 훨씬 크다. 특히,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제한적인 비즈니스호텔(신라스테이) 매출이 전체 호텔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신라스테이는 현재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에 수혜가 큰 상태다. 서울 6개를 비롯 전국 전점포가 80%대 투숙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85%까지 올라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만실이라는 말이다.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제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은 제주호텔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다.

2026년 06월 11일 | Global Equity

뉴코어(NUE.US)

데이터센터와 인프라가 견인한 1Q26 실적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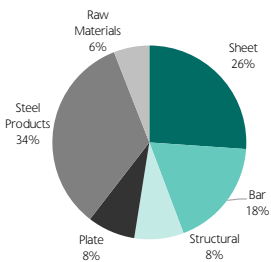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56.69 USD
CP(6.09) 254.32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재량		
홈페이지	www.nucor.com		
시가총액(십억USD)	57.9		
시가총액(조원)	87.8		
52주최고/최저()	264.6688/115.66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12.51		
STATE FARM MUTUAL AUTO INS	11.0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1.8	60.8	104.0
상대	12.0	52.8	81.7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734	32,494	38,040	38,896
영업이익	2,842	2,592	5,126	5,554
순이익	2,027	1,744	3,579	3,882
EPS(USD)	10.8	9.4	14.8	16.5
EPS(YOY, %)	(43.8)	(13.2)	58.2	11.0
ROE(%)	9.8	8.4	15.0	15.2
PER(배)	10.8	17.4	17.1	15.4
PBR(배)	1.3	1.8	2.5	2.2
배당률(%)	1.2	1.4	0.9	0.9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철강 부문의 역대 최대 출하로 수익성 큰 폭 개선

1분기 뉴코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5.0억달러(YoY +21.3%, QoQ +23.5%)와 11.1억달러(YoY +275.59%, QoQ +121.16%)를 기록했다. 견조한 데이터센터용 철강 수요와 수입재 감소에 힘입어 Steel Mill 부문의 출하량이 703만톤(YoY +8.7%, QoQ +19.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철강 가공품을 판매하는 Steel Product 부문 판매량 또한 국경 장벽 건설용 수요 호조로 116만톤(YoY +10.6%, QoQ +13.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추종했던 미국 철강 가격이 연말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Steel Mill 부문의 ASP가 1,074달러/톤(YoY +14.5%, QoQ +5.4%)을 기록하며 스크랩 가격 상승분을 상회했고 결과적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분기 평균 가동률이 86%(YoY +6%p, QoQ +4%p)에 달하여 고정비가 절감된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Q26에도 ASP 상승과 판매 증가 지속 전망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견조한 철강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산 철강에 대한 50% 관세 부과로 철강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22%에서 최근 15%까지 축소되었다. 뉴코어 또한 내수 점유율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1분기 Steel Mill의 수주잔고는 470만톤으로 전분기대비 20% 증가함과 동시에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Steel Product의 수주잔고 또한 전분기대비 9% 증가했고 2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뉴코어는 4~5월에 걸쳐 지속적인 열연 가격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철강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Steel Mill 부문의 ASP 또한 상승할 전망으로 2분기 추가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내 긍정적인 영업환경 하에 생산능력 확대 긍정적

전분기대비 증가한 뉴코어의 주요 부문 수주잔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요가 AI 데이터센터에만 치중되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전방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미국의 철강 수요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뉴코어의 주요 부문 판매는 견조할 전망이다. 한편, West Virginia 신설 판매 공장은 2분기부터 산세 라인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냉연과 열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상업 생산 및 단계적 램프업(Ramp-up)에 돌입할 전망으로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도 긍정적이다. 뉴코어는 지난 2년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연간 약 30억달러의 대규모 CapEx를 집행했으나, 올해 주요 투자가 마무리되어 CapEx가 25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잉여현금흐름(FCF) 유의미한 개선이 가능할 전망(1Q26 2.3억달러 잉여현금흐름 기록)으로 확보한 여력을 바탕으로 추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6년 6월 11일 | Global Equity

스틸다이나믹스(STLD.US)

미국 철강 시장 공급 부족 수혜와 신사업 성장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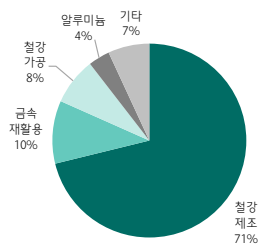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57.75 USD
CP(6.09) 269.8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재광		
홈페이지	www.steeldynamics.com		
시가총액(십억USD)	38.9		
시가총액(조원)	59.1		
52주최고/최저(USD)	280.4899/119.8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	11.91		
블랙록	8.6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4.8	63.1	101.6
상대	14.9	55.1	79.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7,540	18,177	22,612	23,223
영업이익	1,943	1,476	3,093	3,443
순이익	1,537	1,186	2,311	2,593
EPS(USD)	9.9	8.1	15.8	18.1
EPS(YOY, %)	(32.3)	(18.3)	96.2	14.4
ROE(%)	17.3	13.3	22.5	21.3
PER(배)	11.6	21.0	17.0	14.9
PBR(배)	1.9	2.7	3.8	3.2
배당률(%)	1.4	1.2	0.8	0.8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역대 최대 철강 출하량과 ASP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

1분기 스틸다이나믹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0억달러(YoY +19.1%, QoQ +17.9%)와 5.4억달러(YoY +95.5%, QoQ +73.4%)를 기록했다. 미국 내 견조한 수요와 수입재 감소로 철강 제품 출하량이 역대 최대치인 364만톤(YoY +4.5%, QoQ +10.1%)을 기록했다. 한편, 스크랩 조달 가격은 396달러(YoY +2.6%, QoQ +5.9%)로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철강제품 ASP는 1,193달러/톤(YoY +19.5%, QoQ +7.8%)으로 스크랩 가격 상승분을 상회하며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철강 가공품 출하량도 14.3만톤(YoY +5.1%, QoQ +3.6%)을 기록함과 동시에 ASP도 797달러/톤(YoY +30.2%, QoQ +8.7%)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한편 알루미늄 부문은 상업생산 전환 단계로의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가동 중단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알루미늄 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6,500만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과 수주잔고가 이끄는 2분기 영업실적 호조

수입산 철강 규제에 따른 수입 감소와 미국의 견조한 철강 내수 영향으로 미국 철강 유통 가격은 2분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철강 제품 사업부는 판재 제품의 75~80%가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가격 상승분이 2분기에 반영되어 추가 ASP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철강 가공품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3월 수주잔고가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견조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미국 철강 시장 호황과 알루미늄 신사업 순항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비주거용 건설 부문 중심의 미국 내 강력한 철강 수요가 지속되면서 철강 가공품 부문은 연말까지 확보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재 비중 축소에 힘입어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규 주력 사업인 알루미늄 판재 공장은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생산 전환 단계로 1분기에 2만 2,000톤을 판매했고 2분기에는 6~7만톤의 판매가 예상된다. 최근 중동발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알루미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경쟁사인 노벨리스의 미국 판재 공장 화재 여파로 미국내 알루미늄 판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스틸다이나믹스의 알루미늄 판재 사업 램프업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스틸다이나믹스는 2026년 1분기 주당 배당금으로 전분기대비 6% 인상된 0.53달러를 발표함과 동시에 1분기 동안 1.15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6/8	664,000	641,000	-3.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BNK금융지주 (138930.KS)	6/8	17,240	16,770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금융지주 중 가장 양호한 지역 기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보유 • 비은행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이익 안정성 확보 유리
오리온 (271560.KS)	6/8	132,600	132,500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심텍 (222800.KQ)	6/8	103,000	109,500	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6.58%	-1.95%p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3.41%	+6.0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805,000	3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63,50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048,000	9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02,500	8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1,100	-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3,000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090,000	27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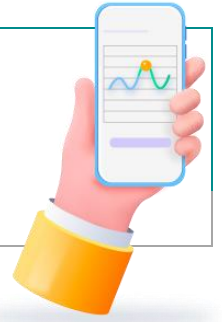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5.40%	-20.27%p	+48.82%	-18.5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7,985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525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3,460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340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91.01	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56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39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45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분기 GDP F (1.8, 이전치 2.1%)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13.4, 이전치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GDP A (3.8%, 이전치 3.6%) 중국 5월 수출 (19.4%, 이전치 14.1%) 중국 5월 수입 (27.4%, 이전치 25.3%) 미국 4월 무역수지 (\$-56.1b,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PPI (6.3%, 이전치 4.9%) 중국 5월 PPI (3.9%, 이전치 2.8%) 중국 5월 CPI (1.2%, 이전치 1.2%) 미국 5월 CPI (E 4.2%, 이전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2.8%,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2.4%,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9k, 이전치 225k) 미국 5월 전년대비 PPI (E 6.4%, 이전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2.3%)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4.8)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E 37,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E --, 이전치 7.1%)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E --, 이전치 -2.3%)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E 4.2%, 이전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6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 이전치 1.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